

순창장류축제 20일 팡파르

세계소스박람회 동시 개막
3일간 펼쳐지는 맛의 향연
66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이번 주말에 순창에 가면 전통장류와 세계소스를 테마로 한 66가지 프로그램의 다양한 맛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순창군은 20일부터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서 제12회 순창장류축제와 세계소스박람회를 동시에 개막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경연, 체험, 문화, 전시 판매 등 8개 분야에서 66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이번 장류축제는 세계소스박람회와 동시 진행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층 강화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주목 받는 프로그램은 2017년

분 떡볶이 오픈 파티다. 고추장 민속마을 중앙 거리 200m 정도에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떡볶이를 만드는 오픈 파티형 행사다. 무료 행사로 21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또 순창고추장을 매개로 한 임금님 고추장 진상행렬과, 고추장 떡볶이 거리 조성,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마을로 가는 여행 등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 운영해 장류를 소재로 한 킬러 콘텐츠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꼬치와 떠나는 소스기행, 반짝반짝 메주만들기 등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이 풍성하다. 또 EDM 야간 서치쇼, 장류마을 좀비야 놀자, 밤 오케스트라 공연 등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제2회 순창세계소스박람회는 고추장 민속마을 발효소스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세계 150여개 기업이 각 나라

의 1000여개의 독특한 소스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 산업관, 마케팅관, 전시관 3개관을 개관하고 13개국 69개사가 참여해 94개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북을 부르는 세계음식 소스전, 6차 산업전, 장수밥상, R&D 전시전 등 전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미디어아트 존도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고추장요리경연대회 출품작을 활용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수제맥주 페스티벌도 운영해 먹거리가 풍성하다. 황숙주 군수는 "제12회 순창장류축제와 세계소스박람회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20일 화려한 막을 연다"면서 "이번 주말에는 전통장류와 세계소스의 다양한 맛과 즐길거리가 가득한 순창장류축제로 가족과 함께 꼭 오셔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31회 사선녀선발 전국대회에서 사선녀로 뽑힌 8명의 사선녀들이 임실군청을 방문해 '임실 알리기'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다짐했다.

8인의 사선녀, 임실 알린다

한지원씨 등 대회 당선자
지역 홍보사절 활동 돌입

2017년 사선녀선발 전국대회에서 당선된 8인의 사선녀들이 임실군 홍보사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8일 임실군에 따르면 '제31회 사선녀선발 전국대회'에서 사선녀로 뽑힌 8명의 사선녀들은 임실군청을 방문, 사선문화제가 지닌 향토문화 고유의 전통성과 임실치즈 등 우수한 지역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임실 알리기'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다짐했다. 이들은 양정두 사선문화제 제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심 민 군수를 만나 "앞으로 1년동안 임실군을 대표하는 홍보사절로서 민족고유의 향토문화 확산과 사선문화제

의 역사적 가치, 임실의 대표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문에는 영예의 진을 차지한 한지원씨를 비롯해 손수희(선), 서지아(미), 조현진(정), 백민(전북일보 포토제니), 정수빈(인기상), 박은희(향토미인) 등이 모두 참여해 홍보사절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내비쳤다. 심 민 군수는 "임실을 대표하는 홍보사절로서 앞으로 1년간 청정 임실의 이미지 향상과 임실N치즈와 고추 등 우수한 농특산물 브랜드를 전국화하는 데 힘써달라"며 "사선문화제가 지닌 역사적 전통과 보존정신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임실군과 전북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택시처럼 부르는 '콜버스' 운행

남원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노선개편 · 호출서비스 운영

남원시가 오는 21일부터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 노선개편과 노선버스 호출 서비스 일명 '콜버스'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지난 2년간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사항과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노선을 조정하고 신규 노선을 확보하는 한편 시내버스 2천원 상한요금제와 무료환승제, 노선버스 호출 서비스(콜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고급버스 도입 등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게 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금년 8월부터 도입하여 남원시 전지역에서 시행중인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권 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동동 지역과 고등학교를 연계하도록 노선을 신설·조정하고, 의료원 노선 연장, 부영3차(오들길)노선 신설 등 시내권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한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월락동 아파트 밀집지역 학생들의 남고, 성원고 등 시내외곽 학교의 등·하교가 상당부분 개선되고, 노선버스 호출



장치 시범 도입으로 시내버스 이용에 소외되었던 농촌지역 교통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촌지역 정류장 53개 마을에서 신개념 노선버스 호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시내버스 호출장치는 이용자가 마을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면 호출신호가 시내버스와 운전기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필요시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시내버스 빈차 운행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크게 해소 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내년 국비확보 안간힘 국회방문 주요사업 협조 요청

남원시(이환주 시장)가 2018년도 국비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구섭 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과소 간부들은 18일 국회의방문해 주요 쟁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윤후석 의원 사무실을 방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해 두 의원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사무실에서는 남원시가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화장품 소재 원료 구축 사업에 필요한 2018년도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적극 노력을 줄 것을 요구했다. 남원시는 심의기간 내 전복도와 공조하여 국회 상주 대응 등 계속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옥정호 수질오염사고 사전차단 방제훈련 실시

임실군이 옥정호의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제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청정옥정호 지킴이'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옥정호 수역의 유류 유출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총동태처와 수습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2017년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옥정호 주요 유입하천인 옥녀동천에서 실시된 방제훈련에는 군 공무원과 환경지킴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류 유출사고를 가상한 모의훈련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옥정호 순환도로를 운행 중인 유조차량이 전복돼 폐유가 옥녀동천에 유입되는 상황을 가상해 수질오염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최초 상황접수와 비상연락체계 가동, 현장이동 총동조치, 유류방



제활동, 사후 폐기물처리 및 주변정화 활동 등 순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옥정호 상수원 환경지킴이들에게 오일웬스, 흡착포 등 수질오염사고 방제 장비의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실제 오염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는 우리 지역의 보배 중의 보배로서 깨끗한 수질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옥정호 상수원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수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보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한농공 유한식 상임감사 순창 방문 현안보고 · 부패 척결 청렴TALK

한국농어촌공사 유한식 상임감사는 17일 순창지사를 방문해 오진휴 지사장으로 부터 지사 현안사항 및 반부패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부패척결 및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직원들과 자유롭게 스스럼 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 공감하는 청렴토론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유한식 감사는 '부패의 이 미지로 기관이 불명예를 얻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십배의 노력 이 더 필요한 만큼 평소 공직자로서 청렴을 생활화하여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깨끗한 공사와 부패제로의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개개인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유한식 감사는 이후 순창군 풍산면 우곡리에 위치한 수양지구 농촌융복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임실군은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타법에 접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건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실군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 원장으로 임실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특례법을 이용할 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640-2073)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